

▶ 내신 기출 문학 비상-상편 ◀

1. 문학의 본질

- (1) 모란이 피기까지는 (66문제)-----1쪽
- (2) 수오재기 (40문제)-----24쪽
- (3) 산속에서 (28문제)-----43쪽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가는 길 (41문제)-----57쪽
-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51문제)-----73쪽
- (3) 눈물 (38문제)-----112쪽
-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0문제)-----126쪽
- (5) 참새 (13문제)-----157쪽
- (6) 꽃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41문제)-169쪽
- (7) 파수꾼 (40문제)-----190쪽
- (8)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45문제)-----221쪽
- (9) 메밀꽃 필 무렵 (26문제)-----242쪽

3. 한국 문학의 성격

- (1) 정읍사 (41문제)-----262쪽

◆빠른 전체 정답-----278쪽

◆해설-----281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비상-상편 ◀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비상-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문학 비상-상편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숲 한켠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모란이 피기까지는”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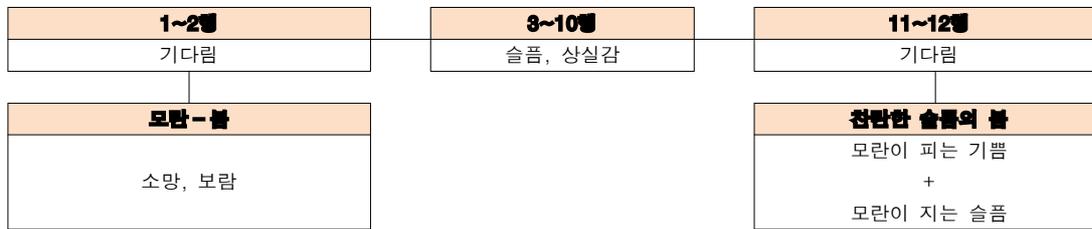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제재	‘모란’의 개화와 낙화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 역설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아름다움에의 도취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잘 보여 줌. •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함. 		

◆구성

1~2행	3~10행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를 느낌.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1. 작품의 사상 전개



2. 시어의 상징적 의미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소망, 희망, 보람, 삶의 가치 등)
‘봄’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시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
‘보람’	‘모란’이 피었을 때 느끼는 기쁨
‘삼백여순 날’	슬픔의 깊이, 정감의 깊이
‘전반한 슬픔의 봄’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의 의미 모습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 보자. 이를 바탕으로 화자에게 ‘모란’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해 보자.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화자에게 ‘모란’의 의미
3~10행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 느낌.		간절한 소망의 대상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2. 이 작품의 어떤 요인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르 테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였다
-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였다.
-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 ‘ㄴ, ㄹ, ㅁ, ㅇ’의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였다

3. 화자가 다음과 같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 ‘찬란한 슬픔의 봄’**
-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 ‘봄’은 화자에게 소망이자 보람인 ‘모란’이 피어나는 기쁨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픈 계절이기도 하다. 화자가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이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는 이처럼 절망과 희망의 감정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용과 서술 방식 면에서 살펴보자.

[앞부분 줄거리]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錢莊)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히 달아난다.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갈 말을 건넨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 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늙은이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角錢) 한 닢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닢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닢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여덟 닢을 각전 닢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大洋]’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던 말ियो? 그 돈으로 무얼 하려고?”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 피천득, 「은전 한 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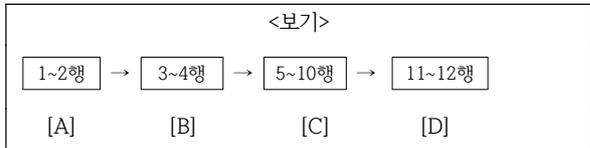
- 내용 면에서: 남들에게는 하찮은 소망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쓴 거지의 집념과 의지가 감동을 주었다.
- 서술 방식 면에서: 거지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지의 말로 글을 끝맺음으로써 극적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뎠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 <보기>에 따라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D]의 '아직'을 통해 화자의 기다림이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B]의 '떨어져 버린 날'이 가정의 상황임을 고려할 때, [C]의 '오월 어느 날'은 그것이 실현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B]의 '비로소'와 [C]의 '하냥'을 고려할 때, [B]의 '봄을 여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C]에서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모란이 피고 짐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⑤ [C]의 '뻗쳐 오르던'과 '무너졌느니'는 각각 [D]의 '찬란한'과 '슬픔'과 대응되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기다림이 오래되고 숙명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모란을 잃은 절망감이 큼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화자의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 주고 있다.
- ⑤ ㉤ : 체념적 마음 상태를 반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3.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수미 상관의 형태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ㄴ.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ㄷ.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ㄹ.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ㅁ. 경어체 어미를 사용하여 부재하는 임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4. ㉠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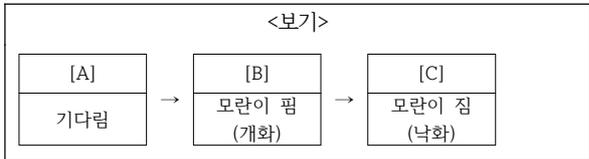
- ① 내 그레들 생각함은 /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 사소한 일일 것이나 /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②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 ③ 내 마음은 나그네요. /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
- ④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김수영, '풀'
- ⑤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은 화자가 [A]의 상황에서 [B]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봄'은 [B]만을 봄이라고 여기며 '모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삼백예순 날'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통해 [C]로 인한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찬란한 슬픔의 봄'은 [B]가 환기하는 봄의 찬란함 속에 [C]가 환기하는 봄의 상실감이 공존한다는 화자의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 ~ [C]가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통해 [C]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뒷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르테요', '느네다'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여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똑똑', '비로소' 등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처음 제시된 내용을 변형하여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7. ㉠ ~ ㉤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 : '똑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잠길 테요'를 수식하는 '비로소'는 화자의 자기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마는 것은 모란의 소멸로 화자가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다.
- ④ ㉣ :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를 통해 화자가 모란을 삶의 보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아직'이라는 시어를 통해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막막함과 지루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8. 뒷글에서 느껴지는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통적 운율인 4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② '-르테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③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였다.
- ④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ㄴ, ㄹ, ㅁ, ㅇ'의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였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9. 뒷글에서 화자는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찬란한 슬픔의 봄'에 나타난 표현법을 쓰시오.
- (2)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조건>

1. '봄은'을 주어로 시작할 것.
2. 6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뎠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애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양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10. ㉠ ~ ㉤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 앞의 모란이 피기까지의 기다림에 이어 떨어져 버린 뒤의 설움이 표현되어 정서상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③ ㉢ : 모란은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객관적 대상이며 시적 화자의 마음과 합일되지 않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 ④ ㉣ : 모란이 지는 것은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슬픔과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모란이 피는 기쁨과 지는 것의 슬픔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산고등학교 (경기)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태어를 사용하여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부사어를 통해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장된 표현으로 서글픈 감정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문산고등학교 (경기)

12. ㉠과 같은 표현방식이 쓰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② 배꽃 같던 요 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 ③ 대동강 강물은 마를 리 없네, 해마다 푸른 눈물 더하니
- ④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⑤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오니 다 른 데 마음 두지 않으리.

문산고등학교 (경기)

13. (나)를 참고하여 (가)의 '모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 ② 시인의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한 대상이다.
- ③ 시인의 상실감이 빚어낸 눈물의 결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④ 시인의 삶이 불변의 가치로 완성된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인이 자기성찰을 통해 얻은 위우침의 의미를 담고 있다.

태원고등학교 (성남)

14. 위 시를 다음과 같이 나눌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B	C	D
1~2행	3~4행	5~10행	11~12행

- B에서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C에서는 물리적 숫자를 사용하여 슬픔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 C에서는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병치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A와 D에서는 역설과 도치를 통해 화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A~D에서는 모두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1.①④

▶① 변주 형태이기에 형식이 자유로운 건 아님 ④ 구체적 사물을 통해 관념적 의미를 전달하기에 구체적 사실성을 부각하는 소재로 바꿀 필요는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실제의’ = ‘사실적’ = ‘현실적’ = ‘실감’

12.⑤

▶(다)에서 눈은 봄의 생명력을 나타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내면 대구법이 됨.

▶넣어둬, 패턴 공략◀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13.④

▶(가) 무엇 → (나) 사랑

14.②

▶②의 ‘꽃’은 ‘선비’를 상징하는데, ㉠처럼 ‘꽃’이라는 구체적인 자연물 이외에 다른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나머지 ‘꽃’이라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나타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자연 ↔ 속세
간접적 ↔ 직접적 / 주체적 ↔ 순종적 / 현상 ↔ 본질
외면 ↔ 내면

15.⑤

▶작품의 주제는 서로 다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16.④

▶(가) 빛깔과 향기: 존재의 본질, (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향량한 가슴: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

17.②

▶심리가 변화하지는 않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갯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놀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18.⑤

▶(나)에서 관념적 차원으로 접근한 대상은 ‘꽃’이며 이것이 (다)에서 나타난진 않음.

19.⑤

▶원작을 변주한 것이지, 원작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건 아님.

20.⑤

▶모두 대화는 없고, 독백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낸다.
-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응, 헛갈리지 마!◀

독백 vs 대화 vs 방백 (★★)

- ㄱ.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 ㄴ.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로 봄)
- ㄷ.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

23.㉔

▶(나)에만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넣어둬, 패턴 공략◀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의 의미로 어휘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어휘 자체의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이지만 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24.㉔

▶㉔ : 가볍고 편리하며 일회적인 사랑을 나타냄.

27.㉔

▶ (나)와 ㉔의 화자는 비판적 태도임.

- ①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② 입을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
- ③ ④ 그리움과 외로움

28.㉔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늘날의 황금만능 시대를 풍자하기에 시적화자의 자조적(자기를 비웃는 듯한) 심리가 담긴 표현이다.

▶응, 헛갈리지 마!◀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남을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자신을 비웃는 듯한 태도.

<자조적>은 후회, 한탄, 체념, 능력 부족,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와 어울린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29.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

까?'가 설의적 표현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 의인법 vs 활유법 (★★★)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3.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31.㉔

▶(라)는 예술과 문학을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오늘날의 황금만능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시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 <보기> '그'에게 ㉤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함.

김광규, <묘비명>

- *주제: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 *해제: 기록된 역사의 허구성과 물질 만능 사고를 비판함.

32.㉡

▶반복과 변화를 통해 인식의 주체(나→그→우리)를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점층법 vs 점강법 (★)

ㄱ. 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낮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ㄴ. 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2.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ㄱ. 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 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 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1. 시에서의 ‘대화’ (★★)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하는 화법의 대화와는 다르게, 시에서는 직접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의식하고 부르거나 건네는 말만 있어도 독백체가 아닌 <대화체>로 본다.

2.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의 의미로 어휘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어휘 자체의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이지만 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33.㉠

▶ㄱ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카메라의 시선을 ‘나→그→우리’로 이동하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값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뒤편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 쓰는 뒤편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34.㉤

▶㉡(인식 이전의 대상)는 ㉢(인식 이후의 대상)와 다른 의미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35.㉡

▶(가)와 (나)의 주제는 다름. (가: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 / 나: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경박한 사랑에 대한 풍자)

36.㉠

▶(가), (나) 모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 사물(꽃 / 라디오)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법 vs 역설법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2.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나면 대구법이 됨.

▶넣어둬, 패턴 공략◀

<섬세함&부드러움>은 ‘경어체’를 사용할수록 깊어지며 ‘명령형’ 혹은 ‘단정적’ 말투일수록 멀어진다.

37.㉢

▶㉡ : (가)의 ‘하나의 몸짓’과 비슷한 의미임.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